삼성 새 가전공장 멕시코 설립 추진

삼성광주전자 영향은?

해외이전설 또 모락 모락 … 지역민 촉각

‘삼성 브랜드’ 달고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북미시장 공략

광주공장측 “확인된 바 없다 … 고부가가치급 제품생산 주력”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가 미국시장에 ‘올인’하기 위해 멕시코 북동부 지역에 대규모 생활가전공장을 설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삼성광주전자의 해외이전설에 힘이 실리는 게 아니냐는 지역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시장에서 삼성 생활가전의 상당량이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에서 탈피해 ‘삼성 브랜드’를 대폭 늘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과 가까운 멕시코 북동부 지역에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가전공장을 새로 짓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면서 “새 공장은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시장을 공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멕시코 케레타로에 가전공장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 소형제품에 국한돼 미국시장을 공략하는데 한계가 있고, 규모도 크지 않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북미시장을 적극 공략할 수 있는 대형 생산라인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제기돼왔다.

멕시코 새 공장건립설은 지난 3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생활가전 사업에 대해 “한국에서 할 만한 사업이 아니다”는 발언 이후 최근 삼성전자가 중장기 전략목표에 따라 해외 현지공장 확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삼성광주전자의 입지를 흔들고 있다.

이같은 해외공장 신설소식이 알려지자 지역민들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투자비와 생산규모 등에 대해 확인된 바 없으나, 삼성광주전자 이전이 사실화된다면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면서 “향후 삼성광주전자의 전략에 대응해 새로운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100여개에 이르는 삼성광주전자 협력업체에도 불똥이 떨어졌다. 협력업체들은 멕시코 공장건립이 현실화될 경우 생활가전 생산라인의 해외이전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하남산단의 A협력업체 대표는 “연초부터 터져나온 얘기들이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엮어지는 것 같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면서 “삼성쪽에서 보다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성광주전자 관계자는 “멕시코 공장건립은 확인된 바 없으며 중장기 전략발표도 삼성광주전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삼성광주전자의 경우 이미 고부가가치급 생활가전 생산중심기지로 재편돼 올해는 지난해 3조1천억원보다 10% 오른 3조4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 광산구 등 주택투기지역 해제 12곳

연말까지 1만8,000가구 분양

이번에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광주시 광산구 등 지방 12개 지역에서 올 연말까지 총 1만8천여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기회에 시장 침체로 미뤄왔던 분양일정을 앞당기면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내놓을 전망이다.

2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투기지역 해제 대상 12곳 가운데 일부 지역 20개 사업장에서 올 연말까지 1만8천132가구가 분양된다.

이들 지역은 이달 28일 주택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종전에 분양가의 40%까지만 허용되던 중도금 대출 비율이 60%까지 확대되고 복수대출 제한 규제도 없어져 다른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연소득의 40%로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적용받지 않아 지금보다 자금운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시 광산구 778가구, 대전시가 6천69가구, 충북 4천812가구, 대구시 2천872가구, 경북 3천601가구 등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기아차 타고 고향 갑니다 기아자동차는 21일 서울 압구정동 국내영업본부사옥 앞에서 김창식 기아차 판촉사업부장과 추석 귀향 시승이벤트 당첨 고객, 기아차 임직원 등 총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기아차 추석 귀향 시승단 발대식’을 가졌다. 〈기아자동차 제공〉

“美 금리인하, 국제유가 상승 부채질”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미국의 금리 인하와 달러 약세로 신흥시장(이머징 마켓)과 국제유가의 버블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18일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이후 뉴욕 증시의 급등과 함께 멕시코 증시와 브라질 증시가 각각 2.8%와 4.3% 올랐고 다음날인 19일 인도 증시가 4.2% 오르는 등 아시아 증시도 랠리에 동참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신흥시장 증시의 랠리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유럽중앙은행(ECB) 등의 긴축정책 완화 등이 다른 어느 곳보다 급성장하는 신흥시장 경제를 더 활성화시킬 것이란 믿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MC) 붕괴 이후 쉽게 조달된 자금들이 급성장하는 기술주로 몰려들면서 닷컴 버블을 키웠던 것과 마찬가지 이유인 셈이다.

메릴린치의 신흥시장 전략가인 마이클 하트넷은 1998년 상황이 재연되는 것 같다면서도 아직은 버블의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신흥시장이 매력적인 이유는 그동안 성장세를 유지해 온 이들 시장의 경제가 외부 충격에 덜 유동적이고 따라서 주가도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문은 이와 함께 미국의 금리 인하는 달러 약세를 부추겨 그렇지 않아도 공급부족 우려로 오름세인 국제유가의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고향가는 길 보험이 있어 ‘든든’

추석연휴 유용한 차 보험 8가지

올해는 추석 연휴가 5일로 길어 예년보다 많은 사람이 차량을 이용해 고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다. 작년 추석 연휴에는 교통사고로 71명이 숨지고 1만1천962명이 다쳤다. 차량 파손 사고만 4만6천308건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사고 예방과 처리 요령 등을 담은 자동차보험 정보 8가지를 소개했다.

1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 가입**=장거리 운전을 하다보면 운전자를 교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운전자의 범위를 본인이나 부부, 가족으로 제한할 경우 형제나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상을 못 받는다.

일정기간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단기 운전자 확대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1만5천~2만원이다.

2 **계약 실효 여부 확인**=자동차보험의 분할 납입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만기가 됐는데도 깜빡 잊고 재가입하지 않아 사고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험증권에 명시된 보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음주운전 사고는 본인이 최고 250만원 부담**=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대인 피해는 200만원, 대물 피해는 50만원의 보상금을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피해 금액만 보험사가 보상한다. 자기 차량의 파손은 전혀 보상을 못받는다. 또 향후 계약 갱신 때 보험료가 2년간 20% 이상 할증된다.

4 **사고 때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차가 웅덩이 등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거나 기름이 떨어졌을 때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등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5 **사고 현장 사진과 목격자 확보**=사고 발생 때는 상대방과 명함을 교환하고 차량번호를 적어두는 것은 물론 현장 사진을 찍고 목격자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6 **다중 추돌 사고는 보험사와 상의**=연휴 기간에는 차량 정체로 연쇄 추돌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이런 사고는 과실 비율을 놓고 다툼이 많은 만큼 섣불리 잘못을 인정하지 말고 보험사와 과실 여부를 상의해야 한다.

7 **새차는 시세 하락도 보상**=출고 2년 이내의 새 차가 사고를 당하면 시세 하락에 따른 손해(일종의 위자료)도 보상받을 수 있다.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1년 이하는 수비리의 15%, 1년 초과~2년 이하는 10%를 위자료로 받을 수 있다.

8 **귀중품 도난은 보상 불가**=차 안에 둔 현금이나 핸드백, 카오디오, 디지털위성방송(DMB) 장치 등은 도난당해도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잘 챙겨야 한다. /연합뉴스

전남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짭짤’

서울서 15억원어치 팔아

전남도가 서울시와 공동으로 실시한 ‘2007 한가위 전남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행사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단지 내 양천공원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한 결과 총 15억300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이번 행사에는 전남도 내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 등 모두 96개 업체에서 생산한 800여개 품목을 선보여 판매액이 지난해보다 3억여 원 늘어났다.

인기 품목은 가장 많은 판매실적을 올린 영암 매력한우고기와 보성녹돈 등 축산물을 비롯해 순천 햅쌀, 영광굴비, 완도의 전복과 멸치, 나주·영암·순천의 배, 영암·해남의 고구마, 김치류, 젓갈류 등이었다.

특히 서울시와 양천구청이 적극 협조하고 인근 지역 아파트 단지 부녀회 대표 40명을 초청해 전남도 내 친환경농산물 생산현장과 가공시설 등을 둘러보고 고구마 캐기 등 체험행사를 갖도록 했던 것도 이번 행사의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비롯해 서울시 자매결연 구와 공동 판촉행사, TV 홈쇼핑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올 추석 연휴기간에 80억원 이상의 전남 농수특산물 판매 실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치경기자 unipark@

모기지보험 이르면 연내 나온다

이르면 연내에 모기지보험이 처음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자가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면 비투기지역에서 현행 규정보다 많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정례 회의를 열어 미국 젠워스모기지보험 한국지점의 보험업 예비 허가를 의결했다.

이 회사는 앞으로 6개월 안에 본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2개월 안에 금감위는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비투기지역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집을 살 때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면 현행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보다 높은 80%까지 금융회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8월 모기지보험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후 처음으로 젠워스모기지보험이 예비 인가를 받았다.

젠워스모기지보험은 1980년 설립돼 지난해 미국 모기지보험시장에서 점유율 5위(11.4%)를 차지했으며 유럽과 호주시장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금감위는 젠워스모기지보험의 한국시장 진출을 계기로 국내 보험사도 모기지보험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경제성장 열쇠는 경제자유 확대”

전경련 최고경영자 조찬회서 제기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더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국제경영원은 21일 여의도 회관에서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과 이상진 에미레이트항공 한국지사장을 초청해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를 열었다.

김 원장은 ‘시장경제에서 부자되기’ 제하의 강연에서 한국이 지난 50여 년에 걸쳐 이룩한 경제 성장을 ‘천지개벽’이라 표현하며 그것은 ‘시장경제’ 때문이었다고 언급한 뒤 경제활동의 자유가 확장돼야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려면 생산성이 높아져야 하고 그의 배경에는 근면함이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그러나 “단순히 근면만 있고 사회주의국가의 경험에서와 같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으면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며 “한국은 기업가들에게 상당한 경제활동의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과 같은 빠른 경제 성장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경영은 시스템 갖춰 함께 하는것”

이구택 포스코 회장 신입사원에 메시지

이구택 포스코 회장은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경영은 시스템을 갖춰 기업 구성원이 다같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20일 인재개발원에서 범 포스코 대졸 신입사원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포스코측이 21일 전했다.

이 회장은 “지금 경영환경은 변화의 폭도 짧아지고 와일드하게 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영은 최고경영자(CEO)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갖춰 모든 사람이 다같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신입사원들에게 열심히 해야 앞으로 닥칠 어려운 환경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개발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특히 포스코의 일하는 방식이 세계에서 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방식에서, 글로벌 환경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일하는 방식과 기업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전동기값 담합 현대중공업·효성

49억 2,100만원 과징금

현대중공업과 효성, 오티스엘리베이터 등 산업용 전동기(모터)를 제조·판매하는 3개사가 무려 8년 간 담합으로 제품가격을 인상해 부당이익을 얻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들 3개사의 가격담합 사실을 적발해 현대중공업과 효성 등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9억2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효성이 33억900만원, 현대중공업이 16억1천200만원이다.

산업용 전동기가 소비재는 아니지만 이들 3개사의 담합 관련 품목의 매출액이 약 4천6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번 담합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9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1998년부터 작년 5월까지 수시로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산업용 전동기중 대형 전동기와 중소형 전동기, 크레인용 전동기 등 3개 품목의 내수판매가격을 5차례에 걸쳐 각각 10~30%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실행에 옮겼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8월 수출, 29억 7,400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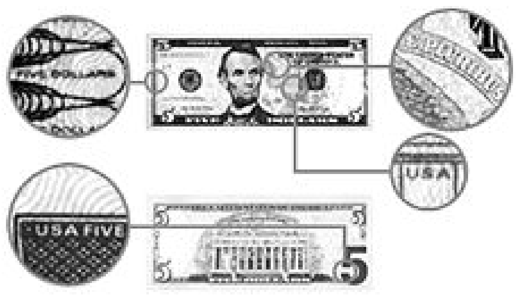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전달보다 크게 늘었다.

광주세관이 ‘2007년 8월중 광주·전남 무역동향’을 조사한 결과 광주 8억100만달러, 전남 21억7천300만달러로 전월대비 각각 7.8%, 10.9% 증가했다.

광주의 경우 승용차(1억9천100만달러), 반도체(2억800만달러), 타이어(7천800만달러), 냉장고(9천100만달러) 등이 수출을 주도했다.

전남은 석유제품(5억8천300만달러), 유기 및 무기화합물(3억5천만달러), 철강판(2억7천800만달러) 등이 호조세를 보였다.무역수지는 광주 3억2천500만달러 흑자, 전남 5억8천400만달러 적자였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5弗 신권 위조방지 색깔로 무장



미국의 5달러 지폐가 위조 방지를 위해 색깔로 무장한다. 미 조폐국(BEP)은 20일 웹사이트를 통해 5달러 신권을 공개했다. 새 지폐에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초상화에 자주색과 회색 등 색깔이 추가됐는데, 자동 판매기들이 신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시간을 주기 위해 내년 봄부터 통용될 계획이다. /연합뉴스